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016.6.19.(다해) 제2003호



성바울로성당 제대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마태 18,20)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67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은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민족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일치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 | | | | | |
|--------------|--|-------------|-------------|------------|--------------|
| 제1독서 | 신명 30,1-5 | 제2독서 | 에페 4,29-5,2 | 복 음 | 마태 18,19-22. |
| 입 당 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 | | | |
| 화 답 송 | ◎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 | | |
| 영성체송 |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 | | | |



밥그릇 때문에

이경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 도량본당 주임

어느 본당에서 보좌신부 시절, 신자들 사이에 유쾌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의 교우들 사이에 반목이 생긴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두 신자들을 좀 중재해 주시지요.” 하지만 본당신부님께서 “본당신자들이긴 하지만 밥그릇 싸움에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송이 보좌신부가 보기에 본당신부님께서 조금은 무책임한 듯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뭔가 경험이 있으시거나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반목은 차차 열어졌고 저는 그 본당을 떠났습니다.

본당 사목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일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자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그 본당신부님의 충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조심해라. 어쭙잖게 끼어들면 양쪽이 다 원망한다.” 그 충고말씀이 참 고마웠습니다. 밥그릇 앞에서는 교회도, 하느님도, 신부도, 수녀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밥그릇 싸움에 안 끼어들면서 어떻게 그 충고를 이해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이렇습니다. 밥그릇이라고 해서 한 가지 밥그릇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지요. 밥그릇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것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지위와 명예의 밥그릇을, 다른 이는 인정과 칭찬의 밥그릇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간장종지만한 밥그릇에도 만족하지만, 다른 이는 대용량 밥그릇도 빼앗기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부든 교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부니까, 교회니까 내 밥그릇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수많은 밥그릇 싸움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파멸로 귀결되지 않는 것은 밥그릇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분열의 원인이야 수없이 많겠지만 역시 그 놈의 밥그릇이 큰 문제입니다.

강대국들의 이념(이데올로기)이라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고 아직 남북분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밥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 밥그릇 안에서 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면 어떡하지요?

예수님 : “용서해라, 네 밥그릇에 손대는 자를...” **골로 3:16**

201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요약)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마다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묵상하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갈라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통해 참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 채 민족분단과 적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냈던 남북 교류협력의 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모두 닫히고 서로를 향한 증오의 언어와 군사력 경쟁이 지배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은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에 기반을 둔 일치가 아닌, 서로를 부정하고 자신을 관철하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칠수록 갈등이 커지고 평화가 멀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과 증오, 자기보존과 확장의 욕망이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와 만날 경우, 남북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치는 화해, 평화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지만, 그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라는 주님의 계명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타자의 고통과 분노 위에 세운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대결의 역사 위에서 자라난 오랜 적개심과 두려움을, 용서와 사랑이라는 복음적 마음으로 바꾸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비의 특별히년’ 선포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는 주제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성찰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마음이 모질어진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와 사랑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새기게 하여, 우리 신앙인에게 무기력해 보이는 자비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여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인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느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연대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우리 기도의 연대가 주님을 통해 놀라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이웃, 또 본당 공동체에서,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북녘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화해를 통한 일치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평화의 노력이 평화를 원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한반도 모든 형제자매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 기 현 주교

‘나’와 ‘너’

이동철 대건 안드레아 신부 | 봉덕본당 보좌

‘나’와 ‘너’는 다릅니다. ‘나’와 ‘너’는 비슷할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특히 신체구조부터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나 특정한 환경에서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가 그렇지요.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 다름의 요소는 ‘나’와 ‘너’, ‘남자’와 ‘여자’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많은 다름 안에서 많은 차이를 경험합니다.

이런 다름의 요소들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부류는 때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분열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다름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6~28)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

는 이들이라는 사실에서 다름의 요소들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요소는 바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양반, 중인, 상민, 노비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한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서로가 가지는 차이의 간격을 줄이고 일치로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오래된 차이에서부터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차이까지. 이러한 많은 차이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간격을 좁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런 모습이니까 거기에 만족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 그렇구나. 나의 모습은 이러거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치를 향한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궤약**

재미있는 교회 상식

교계제도(敎階制度)

가톨릭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수천 년을 독특한 질서와 제도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구심점이자 교회의 조직과 체제를 이루는 원천이 되고 있는 교회의 위계질서를 ‘교계제도(hierarchy)’라고 하는데 성품성사를 통해 임명된 주교, 사제, 부제로 이루어진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넓게는 성직자 및 평신도를 포함하는 교회조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이 사목권한이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교회헌장 18항 참조).

교계제도 안에서 성직자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교황(敎皇, Pope, Holy Father)’은 현재 가톨릭 교회 최고의 사목자로 로마교구의 교구장 주교이며 세계 주교단의 대표입니다. 교황 다음으로 고위 성직인 ‘추기경(樞機卿, Cardinal)’은 추기경단을 이루어 교황을 보필하고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이들은 로마 행정기구의 장관직을 맡기도 하며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은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대주교(大主教, Archbishop)’는 대교구로 분류된 지역을 다스리는 주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광주, 대구의 세 개 교구가 대교구로 분류되며 이 교구의 교구장이 대주교가 됩니다. ‘주교(主教, Bishop)’는 사도들의 후계자로 하나의 교구를 책임지는 재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견진성사의 통상적인 집전자이며 성품성사의 수여자입니다. 교구장 주교를 돕는 보좌주교는 부주교로 임명되면 교구장 공석 시 교구장 자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에 대한 경칭으로 ‘몬시뇰(Monsignor)’이 있는데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나 덕망이 높은 성직자가 교황으로부터 칭호를 받습니다. 흔히 신부라고 불리는 ‘사제(司祭, Priest)’는 일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관할 주교를 돕기 위해 서품되는데 사제들의 사목권은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지만 그 사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교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주교를 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거행에서 주교나 사제를 보좌하기 위해 서품되는 ‘부제(副祭, Deacon)’가 있습니다. 부제는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할 수 있고 성체의 보관과 분배, 세례성사, 혼배, 장례식을 주관하며 준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제로 서품되기 전 단계인 성직 부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평신도 중에서 품을 받아 교회에 봉사하는 종신부제직도 있습니다.

한편, 수도자는 수도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교계적 구조의 일원이 아닙니다. 신분상 성직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자는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하나님께 봉헌되어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분들입니다. 



교구장 동정

■ 제5대 마산교구장 착좌식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6월 8일(수) 오후 2시 마산 체육관에서 열린 제5대 마산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착좌식에 참석하였다.

■ 대구주보 최다보유자·신앙체험수기 당선작 시상식



대구주보 2000호 발행을 기념한 대구주보 최다보유자 및 신앙체험수기 당선작 시상식이 6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생명은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일시 및 장소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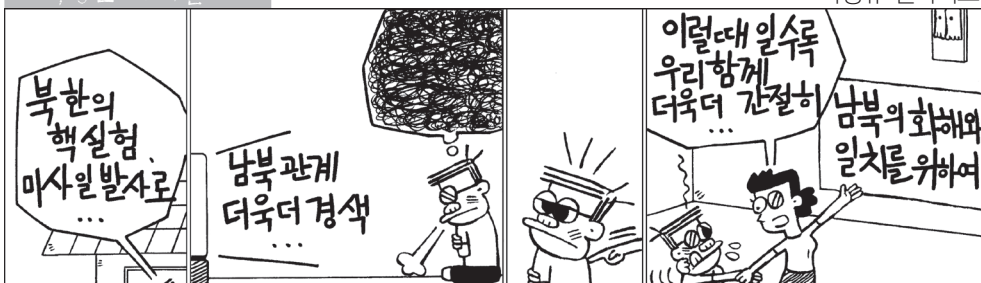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문의 : 053-250-3011

사이비 신흥종교와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 근래 들어 성모당과 각 본당에 **신천지** 신자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금하는 **나주 율리아**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20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6월 21일(화) 14:00 신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6월 21일(화) 19:30 다사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6월 20일(월) 11:00 순례자성당		6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22일(수) 10:00 평화성당		6월 22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효령하늘집 피정(개인 휴식을 위한 곳)

현대인의 정신적·영적 삶의 편익을 위해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산내 치유 피정: 6.28(화)~29(수)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7.2(토) 10:00

일정: 10:00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안수), 면담 고해성사

위치: 영남대역 4번 출구(9:30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대구성령봉사회 일일 피정

일시: 7.16(토) 14:00~17:00

장소: 평리동 성령봉사회관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7.29(금) 14:00~31(일) 17: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렉시오디비나(성독) 심화 피정

기간: 8.3(수)~7(일)

장소: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인원: 40명(1인 1실) / 피정비: 29만원

지도: 허성준 신부·이경희 수녀(OSB)

문의: 이바오로, (010)5399-0669

예수회 7월 성소식별 피정

기간: 7.8(금)~10(일)

주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신청: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젊은이 침묵 피정

기간: 7.2(토) 16:00~3(일) 17:00

장소: 작은자매관상선교회 본원(진주)

주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문의: (010)5805-7665

(055)752-7665

제주도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7.1~4 / 7.19~22 / 7.25~28

8.1~3 / 8.5~8 / 8.10~1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군위 소보동지 에니어그램

일시: 7.2(토) 10:00~16:00

8.28(일) 10:00~16:00

강사: 김연희마리아 수녀

대상: 누구나 / 회비: 1인 10만원

신청: (010)2649-2045

35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23(토)~31(일) 8박 9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통중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피(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한.목**
www.misoindental.com **아.안.진.료**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금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곽연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JS 전기조명

LED 전문시공 인테리어 설계
밝고 긴 수명, 전기료 절감

대표 안 준 영(대견안드레아)
안 승 재(베드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1666 전기조명관 120호
☎ 053)604-4589 | 010-3693-8816

행사 | 모임

김도율(요셉) 신부 즐거운 비상전

기간: 6.14(화)~19(일) 10:30~20:00
장소: 대백 프라자 갤러리
문의: 불로성당, 981-2035

고성성당 새성전 기금마련 뮤지컬 공연

영적성장과 주님께 순종할 기회로 초대
기간: 9.23(금)~25(일)
제목: 서울할망 정난주
장소: 오페라하우스 / 문의: 352-1412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6.20(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가톨릭미용인회 모임

일시: 6.27(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사목담당(대건관 2층)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문의: (010)9518-7090

베네딕도 청년 성가단_성경 테마 음악회

일시: 6.24(금) 20:00, 삼덕성당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010)5918-3014

대구평화방송 개국20주년 기념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초청음악회

일시: 7.13(수) 20:00, 3만원 / 2만원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구 시민회관)

예매: 티켓링크, 지원클래식 656-4732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교육 | 모임

청소년 중국 성지순례단 모집

기간: 7.27(수)~31(일)
장소: 상해와 인근 지역 / 대상: 중고등
사전모임: 7.3(일) 15:30
참가비: 약 90만원 / 마감: 6.21(화)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대교구본당사회복지협의회 25주년_역사사진 찾기

대상: 본당내 복지활동 사진(1991년
~2008년) / 마감: 7.31(일)
문의: 교구 사회복지회, 253-9991
사진 제출자 소정의 상품지급 예정

가톨릭근로자회관 7월 영어성경공부 모집

개강: 7.1(금) / 월 3만원(교재비 별도)
창세기: 월, 수 10:10 / 14:50 / 17:00
티토·판관기: 화, 금 10:10
여호수아·에페소: 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2578-5535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 연주

기간: 7.25(월)~28(목), 가톨릭대성심교정
주제: 시간전례·미사전례성가
교수: 박원주·최호영 신부 외 15명
내용: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

악, 작곡, CCM / 신청: (010)4513-760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오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스칼라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2649-2045

채용 | 안내

성요셉관(원로사제관) 직원 채용

모집: 시설·관리직 0명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사본 / 마감: 6.20(월)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3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나성훈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우리아이 아플땐?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월, 일, 아침 9시 ~ 오후 11시
토, 일, 밤 9시 ~ 오후 11시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053) 253-3399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문로 100-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자비의 특별히전"
(주)성지여행과 함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체중계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로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박 은 석(디도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 철 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